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업의 미래   |
| 이슈분석    | 디지털화로 확장되는 헬스케어 생태계  |
| 금융경영브리프 | 애플, 후불결제서비스 출시로 금융업 확장 본격화<br>Chase, 지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옴니채널 강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외국인 자금유출 경계감 확대<br>외 환 : 원화 수난시대, 당분간 高 변동성 불가피<br>부동산 : 가격 상승 기대 약화되며 매수심리 위축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uyoung.shin)

#### 논단

연구위원 류창원(cwryu)

####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유진(jazzgene)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이수영(sylee11)  
연구원 송형은(hesong)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수석연구원 최제민(jeminchoi)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업의 미래
- 04 **이슈분석** 디지털화로 확장되는 헬스케어 생태계
- 08 **금융경영브리프** 애플, 후불결제서비스 출시로 금융업 확장 본격화  
Chase, 지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옴니채널 강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외국인 자금유출 경계감 확대  
외 환 : 원화 수난시대, 당분간 高 변동성 불가피  
부동산 : 가격 상승 기대 약화되며 매수심리 위축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업의 미래\*

류 창 원 연구위원(cwryu@hanafn.com)

코로나19 이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가 매우 크다. 빅테크가 중심이 된 간편결제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선불충전금 등 비카드 결제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제를 내재화하는 커머스 업체의 영향력도 커졌다. 정부가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경쟁력은 빅테크 간편결제사 대비 약하다. 카드사들은 개방형 종합결제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정부도 카드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등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카드업은 지급결제 기능과 부대 혜택 제공을 통해 모집된 고객을 기반으로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개인들의 인구 통계 데이터와 결제를 통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여신사업을 통한 신용 데이터를 갖게 된다. 카드사, 회원(소비자), 가맹점으로 구성된 산업 구조는 양면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다. 플랫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면의 균형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지급결제시장의 환경 변화는 플랫폼 양면에서 균열을 일으키면서 카드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카드업은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의 성격을 보유

### ::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속화

우선 지급결제시장에서 빅테크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빅테크가 중심이 된 간편결제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며, 2021년 221조원에 달해 국내 민간결제 1,000조원의 20%를 넘어섰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비여력이 큰 40대 이상 중장년층들도 간편결제를 늘리고 있어 간편결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 사업자 경쟁에서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가 금액기준으로 '21년말 49.7%를 기록하여 카드사 등 금융회사(27.6%)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빅테크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의 강점 영역이었던 오프라인 결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QR기반 독자결제망을 확대하고 결제와 멤버십 적립을 한번에 가능하게 하는 등 편의성도 높이는 전략으로 카드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카드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주로 자사 카드만 연결되는 폐쇄형 구조에 생활 혜택도 부족한 편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간편결제는 성장세를 지속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선불충전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커머스사업자의 지급결제 영향력이 확대

미미했던 선불충전금 규모도 눈에 필만큼 커지고 있다. 2022년 1분기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은 4,046억원을 기록하였고 네이버페이에도 948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간편결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카드 연결보다는 계좌 기반 선불충전금이 자사 생태계내에서 유통될수록 수익성이 개선된다. Z세대의 선불충전금 활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결제 습관이 고착화될 경우 향후 카드사용이 일부 둔화될 수 있다.

커머스 사업자들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결제수단으로 모바일 간편결제가 압도적이며 커머스 업체의 자체 충전금도 많다. 국내 스타벅스앱에도 3천억원이 충전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Apple Pay, Starbucks App 등 빅테크나 유통사업자의 영향력이 큰 반면 MasterPass와 같은 카드사의 영향력은 작은 편이다. 특히 해외에서 커머스업체의 적극적인 제휴로 BNPL(Buy Now, Pay Later)로 불리는 후불결제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이 혁신금융서비스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등 카드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구매시 결제과정이 불편하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커머스들은 자체 간편결제를 강화하거나 후불결제를 연계하는 ‘내재화된 결제(Embedded Payment)’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정부의 정책은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카드업 발전에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정부는 지급결제산업의 혁신을 추진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정부의 역할은 카드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소득공제와 같은 유인책을 도입하여 카드결제를 유도하였고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 등 가격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결제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결제 사업자를 육성하고 개인사업자CB 등 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급결제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카드사로서는 경계가 사라지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되면 빅테크 간편결제사들은 카드, 계좌, 충전금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실상 신용카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상품 중개 등의 서비스도 가능해져 명실상부한 종합금융플랫폼이 될 길이 열렸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송금과 결제를 기반으로 거래를 일으키고, 전자영수증, 인증서비스, 전자문서, 멤버십 등 생활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Lock-in시키며,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급결제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지향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간편결제에 카드 연결 비중이 높아 빅테크와 카드사가 상생하는 효과가 있으나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의 규제가 실현되면 빅테크 간편결제사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이미 카드사가 결제 접점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흐릿해진 가운데, 최악의 경우 카드사는 카드 발급과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공급자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 ❖ 미래 카드업을 위한 카드사의 혁신과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필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역량은 고객기반과 개방성, 데이터 분석 등에서 빅테크 간편결제사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카드사들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투자를 바탕으로 과감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생활속에서 차별화된 결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카드사가 강점을 가진 다양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소비지출 관리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들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사 카드에서 모든 지급결제수단으로, 결제 중심에서 종합생활금융서비스로 카드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국내 카드업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결제사업에서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여신사업을 확대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경영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전성은 필연적으로 악화되었다. 금리인상기 조달비용 증가로 올해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을 위한 투자가 늦춰질 우려가 크다. 신정부에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카드사들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정책에서도 종합지급결제업자 등 새로운 라이선스가 카드사를 배제하고 전자금융업자에게만 부여되면 카드업과 빅테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소되기 어렵다. 결제수단으로서 카드는 신뢰성과 안정성, 범용성이 우수하다. 카드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필요

우수한 결제 인프라인 카드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

## 디지털화로 확장되는 헬스케어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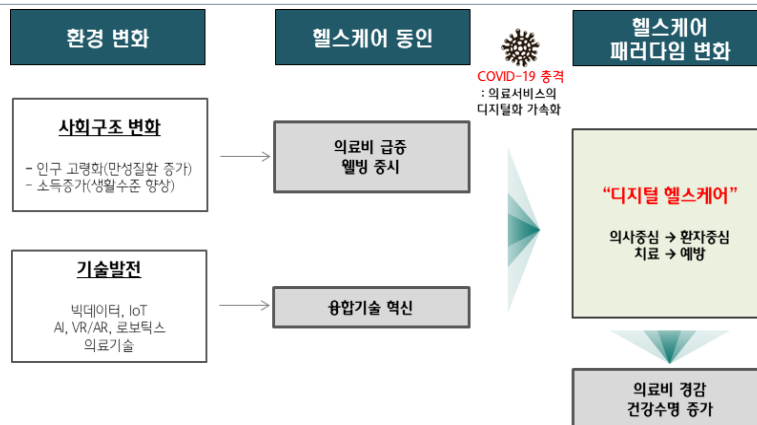
김 유 진 연구위원(jazzgene@hanafn.com)

팬데믹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산업의 뉴노멀로 인식되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또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되고 산업의 가치사슬이 확장되면서 이종기업과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빅테크, 유통, 패션 대기업과 신사업(원격의료, 홈트레이닝, 슬립테크, 펫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따라서 금융사는 적절한 여신 및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플랫폼 기반의 효과적인 헬스케어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덤벨 이코노미가 재부각된 가운데, 특히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뉴노멀로 등장

-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기대수명 상승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이동
- 특히 팬데믹 시기에 덤벨 이코노미가 재부각된 가운데, 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역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CT 기반의 신개념 의료 서비스 모델을 적극 활용
- 원격의료의 불법인 한국에서도 팬데믹 시기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허용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방증
  -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허용된 '20년 2월 24일부터 '22년 6월초까지 510만건의 원격진료가 발생했고, 의원이 80% 이상을 차지(의료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촉진 요인 및 영향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덤벨 이코노미(Dumbbell Economy)란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현상을 지칭(F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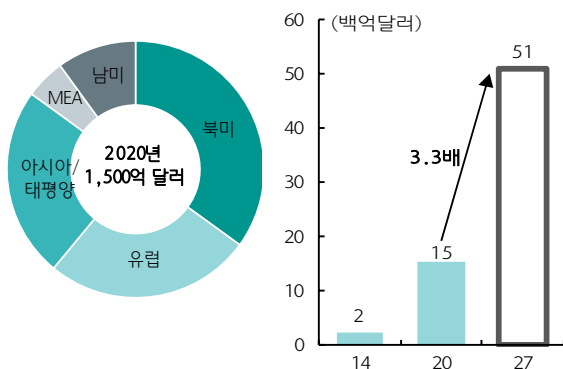
■ 우호적인 사회·경제·정책적 환경 하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 속도가 상향

-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회·경제적 환경(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및 기술 발전(ICT 융합), 우호적인 정책(규제 완화) 등에 따라 고성장 추세를 지속할 전망
  - GIA(Global Industry Analysts)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년 1,525억 달러에서 연평균 18.8%로 성장하여 '27년 5,0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및 우호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성장할 전망
  - 과거 선진국(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가 향후 세계 각국에서 비대면 진료, 디지털 치료제, 의료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로 확장

■ 특히 의료산업 구조 상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큰 한국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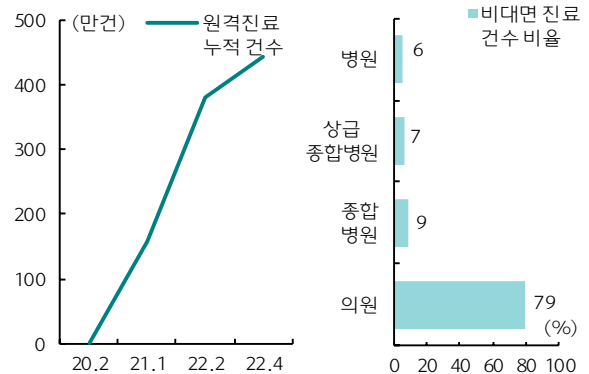
-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강점을 가진 디지털 헬스케어에 주목
- 국내의 경우 인구수 대비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환자)의 니즈가 확대
  -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천 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명)에 못 미치며, 80% 정도가 대도시에 편중
- 또한 팬데믹 시기 경험한 비일상적 의료 서비스(원격진료 등)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 정책 또한 점진적인 규제 완화로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를 지지
  - 신정부는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선정하여 신성장 산업으로 장려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특히 일부 디지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언급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지역별 비중 및 전망



자료 : Grandview Research, Global Industry Analysts

■ 국내 의료기관의 원격진료 실적 현황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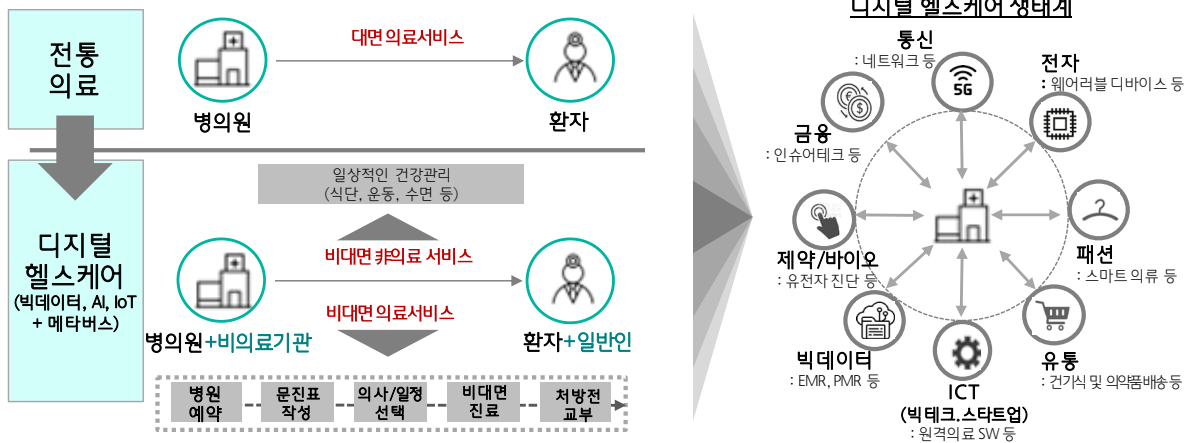
■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되고 의료산업의 가치사슬이 확장되면서 산업의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

- 최근 ICT 기술과 건강관리(의료 + 비의료) 서비스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전방위적으로 확장
- 이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산업의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 제공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축소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
  -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기존 의료기관에서 비의료기관으로 확장되고, 수요자는 환자에서 일반인이 추가되면서 사전진단 및 치료, 건강유지의 서비스 영역이 부각
- 특히 바이오헬스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비대면 의료 규제 완화 등)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

■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하에 빅테크, 유통, 패션 등 이종기업의 헬스케어 사업 진입 및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하에서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신시장 발굴에 적극적인 비의료 기업(스타트업 포함)의 행보가 기대
-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된 의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의료기관(스마트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시장이 재편될 전망
- 비의료 분야의 경우 빅테크, 유통, 패션 등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이종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한편, 다양한 신개념 서비스 발굴로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스타트업의 사업 영역이 확장될 전망
  - 원격의료, 일상 건강관리(홈트, 슬립테크), 펫 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가 형성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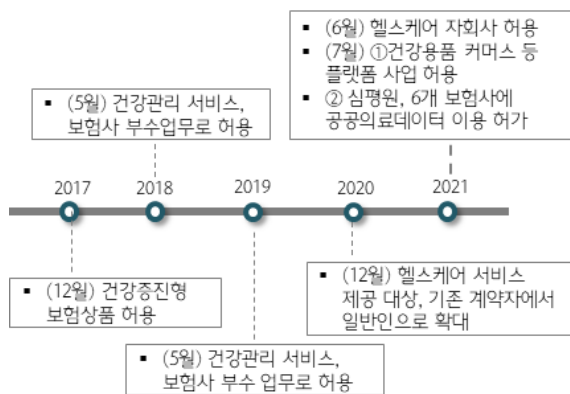
■ 금융사는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발굴, 평가하여 적절한 여신 및 투자정책을 수립할 필요

-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한 기업(또는 의료기관)의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수요 발생 시 공격적인 여신정책을 확대
  -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면서 안정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여신정책이 유효
- 또한 공격적인 R&D 및 시설 투자를 통해 시장 초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헬스케어 관련 ICT 기업(스타트업 포함)을 발굴하고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더 나아가 헬스케어와 연관성이 높은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헬스케어와 연관성이 높은 보험 영역에서 新 수익원 확보를 위해 플랫폼(앱) 등의 방식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
-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자회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을 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통합형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제휴
  - 향후 법·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격진료가 허용된 국가(미국, 중국 등)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수익모델의 변화를 모니터링
-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그룹 내 다양한 금융상품 및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 가능한 영역에서 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의료 서비스 기업(스타트업 포함)과 제휴, 헬스케어 생태계 직접 조성 등이 존재 

■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완화 일정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보험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현황

기업	주요 서비스
KB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21년 11월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인 'KB헬스케어'를 설립</li> <li>■ 초기 B2B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추후 B2C로 개인 고객으로 서비스를 확대</li> </ul>
신한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2월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 설립</li> <l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홈트 서비스)인 '하우핏'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li> </ul>
삼성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9월 '라이프시맨텍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계약</li> <li>■ '22년 1월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과 업무 협약을 체결</li> </ul>

자료 : 언론보도 자료 종합

## 애플, 후불결제서비스 출시로 금융업 확장 본격화

이수영 연구위원(sylee11@hanafn.com)

애플은 애플페이, 애플카드에 이어 후불결제서비스(BNPL)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 직접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차주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애플의 이러한 행보는 궁극적으로 리테일 금융서비스를 내재화하여 애플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것의 일환이다.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잠식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사는 자체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 애플은 후불결제서비스 'Apple Pay Later'를 자회사를 통해 직접 제공할 계획<sup>[1]</sup>

- 애플이 제공하고자 하는 후불결제서비스(BNPL; Buy Now, Pay Later)는 물품을 먼저 구매한 후 분납해서 결제하는 서비스로 결제 수단이 접목되어 있는 소액 대출 상품의 일종
  - 국내에서는 신용카드 할부서비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휴대폰 후불결제 서비스 등이 유사
- 'Apple Pay Later'는 애플페이의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 없이 구매 후 6주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 본 서비스는 애플의 자회사(Apple Financing LLC)를 통해 직접 제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애플이 금융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
  - 애플의 금융파트너사인 골드만삭스와는 마스터카드 결제망 사용을 위해 제한적으로 협력할 뿐 언더라이팅과 대출은 자회사가 직접 수행하며, 자회사는 주(state) 대출 라이선스를 획득

### ■ BNPL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대출 비즈니스로 차주의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핵심


- BNPL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의 이연이지만 궁극적으로 구매를 위한 소액대출사업으로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잠재리스크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
  - 한도는 결제당 최대 1,000USD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미납시 추후 거래가 제한됨
- 애플은 은행들이 신용등급 판별시 사용하는 FICO의 신용점수와 자체 신용평가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차주별 신용점수를 산출할 계획
  - 신용도 측정에 활용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 회사인 영국의 스타트업(Credit Kudos)을 인수('22.3)
-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Apple ID데이터를 사기예방, 신원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

[1] "Apple sidelines Goldman Sachs and goes in-house for lending service", FT, 202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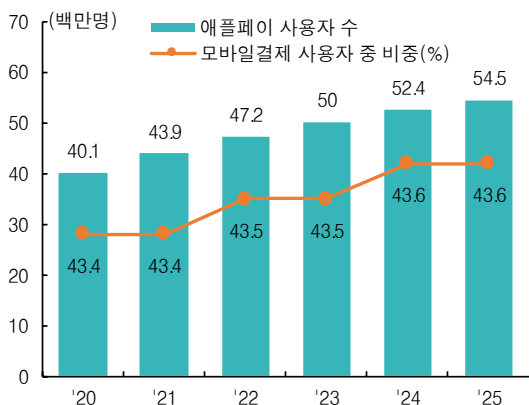
■ 애플은 리테일 금융을 In-house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침투 중

- 애플은 애플페이('14년), P2P('17년), 애플카드('19년) 등 금융서비스를 확장 중이며, 강력한 브랜드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중
  - 미국 내 애플페이 사용자는 4천만명으로 모바일 결제 사용자 중 43%, 유통 커버리지는 85%
- 애플은 향후 금융파트너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자체 제공하기 위한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결제프로세싱, 차주 리스크 평가, 분쟁 조정 등 대고객 서비스, 금융사기 분석, 이자 및 리워드 책정 방식 등에 대해 연구 중이며, BNPL서비스가 그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
- 궁극적으로 금융을 통해 애플의 생태계와 플랫폼을 확장하고 사용자들의 Lock-in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수익을 확대하려는 목표
  - 애플의 서비스 수익(금융서비스 포함)은 '17년 32.7억USD에서 '21년 68.4억USD까지 증가

■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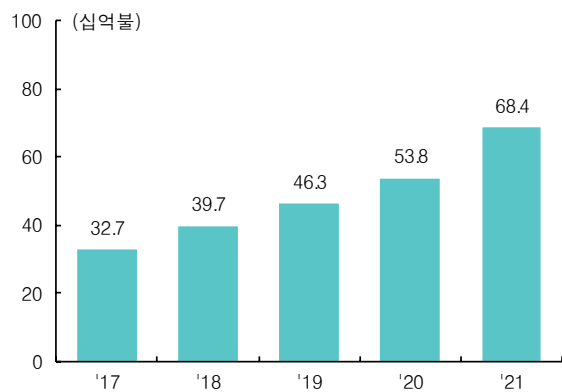
- 금융사들은 자체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빅테크 플랫폼과의 다양한 협력 방식을 모색할 필요
  - 애플의 금융협력사인 골드만삭스는 애플을 상대로 서비스형 बैं킹(BaaS)을 위한 플랫폼 제공 의향을 표명
- 또한 BNPL 시장은 선파일러의 결제 데이터 획득,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MZ세대 유입 등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뿐 아니라 은행 및 카드사의 관심이 증대
  -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민카드는 다날과, 신한은행은 NHN페이코와 제휴하여 금년 하반기 중 진출 계획을 밝힘 

■ 미국 애플페이 사용자 수 및 비중



주 : '21년 이후 전망치  
자료 : eMarketer, 2021.3

■ 애플의 서비스 수익(금융 포함) 추이



자료 : 애플, 2022.3

[2] “Apple Working to Bring More Financial Services In-House”, Bloomberg, 2022.3

## Chase, 지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옴니채널 강화

송형은 연구원(hesong@hanafn.com)

디지털 전문가들은 금융의 미래는 오프라인 지점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대형 은행인 JPMorgan Chase는 디지털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지점을 지속해서 건설해 나가며 다각화된 채널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최적화된 지점 설립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강화하며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과 마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 Chase Bank는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

- Chase Bank는 현재 4,600만 명 이상의 모바일 활성 고객을 보유 중이며 이는 2019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sup>[1]</sup>
  - 디지털 채널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서비스 및 고객경험을 발전시키며 2019년 대비 2021년 고객 만족도가 10%p 이상 상승
  - 2022년 1월 핀테크 및 디지털 기술 개발과 관련 인재 확보에 대한 비용으로 약 14조 2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sup>[2]</sup>
- 美 전역 전체 지점 수는 2017년 5,150개에서 2020년 4,800개로 감소했지만, 850개 지점을 축소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에 약 500개의 지점을 새로 설립
  - 2021년 기준 고객의 70%가 지점을 방문했고 그 중 20%는 은행원을 직접 만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오프라인 채널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 Chase Bank는 디지털 금융과 지점 네트워크의 동시 성장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투자

- Chase Bank는 리테일 뱅킹 운영에 있어 디지털 기술과 지점 네트워크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채널과 전통 대면 채널이 대체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온·오프라인 채널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
-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옴니채널 전략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채널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1] "Chase Reveals Its Strategy for Dominating Retail Banking", The Financial Brand, 2022.5.31

[2] "JPMorgan plots astonishing \$12bn tech spend to beat fintechs", Financial Times, 202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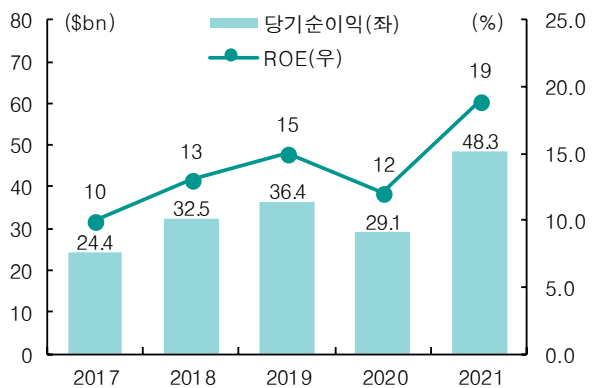
■ Chase Bank는 디지털 채널 강화와 더불어 오프라인 채널의 중요성 강조, 다양한 지점 네트워크 강화 전략 실시

- Chase Bank는 지점 접근성이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데 주요 요소라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규 고객이 지점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
-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은행점포를 일방적으로 줄이기보다 최적화된 지점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
  - 2021년 기준 Chase Bank가 각 지점 당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균 가구는 6,660 가구로 2017년 대비 25% 증가
  - 한편, 더 많은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2021년 기준 지점 운영비용은 2017년 대비 12% 감소
- 지점 네트워크 강화 전략 중 하나로 전문화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서비스가 제한적인 일부 도시 지역의 수요에 맞춰 전문가를 배치

■ 국내 전통 금융사들은 디지털 금융에만 치중하기보다 채널의 다각화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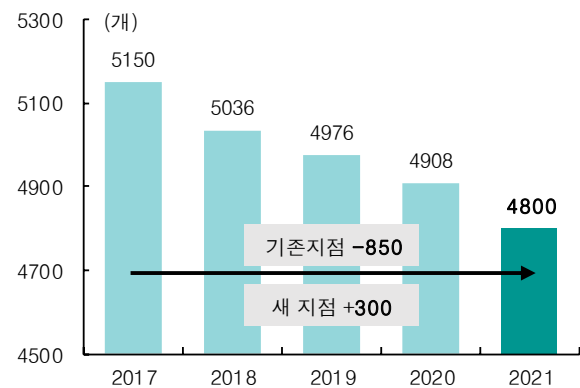
- 국내 금융사들은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견제와 비용절감을 위해 디지털 금융에 집중하여 은행 지점을 급격하게 축소
- 디지털 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과는 차별화된 전통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국내 금융사들은 디지털 금융에 치중하기보다 최적화된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채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할 필요
  - 지점의 개수의 증감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지역에 최적화된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고려 

■ Chase Bank의 실적 추이



자료 : JPMorgan Chase Annual Report

■ 미국 내 Chase Bank 지점 수 변화



자료 : JPMorgan Chase Annual Report

## 금리: 외국인 자금유출 경계감 확대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로 급등했으나,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큰 폭 하락했다. 국내금리는 한은의 빅스텝 우려로 급등했으나, 총재의 발언으로 관련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반락했다.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앞두고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서 유출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현재는 급격한 통화긴축과 원화의 가파른 약세 등을 고려 시 경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시장금리는 대외금리 안정에도 투자심리 부진이 이어지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 글로벌 금리는 통화긴축 기조 강화로 급등했으나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큰 폭 하락

- 5월 美 CPI 상승률(YoY 8.6%, 41년만 최고)이 예상을 상회하자 6월 FOMC는 28년만에 최대폭 금리인상(75bp)을 단행하고 7월 50bp 이상 인상을 예고
  - FOMC 기준금리 전망(%), 3월→6월): '22년 1.9→3.4, '23년 2.8→3.8, '24년 2.8→3.4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하락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지속 인상할 방침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연착륙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경기침체 리스크를 인정
- FOMC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각각 15년만(-0.75%→-0.25%), 20년만(0.75%→1.25%)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국 긴축이 가속화
  - 한편 영국은 연속 5회 금리인상(1.00%→1.25%)을 단행하는 만큼 25bp 인상폭 유지
- 美 금리는 FOMC를 앞두고 급등하다 공격적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반락(2/10년(%): 6.10일 3.06/3.16→ 14일 3.43/3.47→ 23일 3.01/3.09)

### ■ 국내금리는 한은 빅스텝 우려로 급등하다 한은 총재의 금리인상 신중 기조로 반락


- 국고채 금리는 美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6월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및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3년물이 한때 3.7%까지 급등
- 한은 총재는 상당기간 통화정책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으나, 빅스텝 결정 시 물가뿐 아니라 경기, 금융안정, 외환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
- 또한 총재는 가계의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은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비용 상승을 우려, 이에 시장의 빅스텝 우려가 약화되며 시장금리는 하락
  - 국고 3/10년(%): 6.10일 3.28/3.50 → 17일 3.75/3.80 → 24일 오전 3.55/3.66



■ 과거 한미금리 역전 시 외인 자금 유출은 제한되었으나, 현 상황은 경계할 필요

- 글로벌 긴축기조 속 외국인 주식자금의 매도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가시화되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순투자가 큰 폭 감소
  - '21→'22.1~6.23일(월평균, 조원): 외인 주식 순매수 -2.1→-3.3, 채권 순투자 5.3→1.9
- 과거 대외긴축 충격 또는 대내외 금리 역전 시기에 외국인 채권자금은 재정거래유인 및 견조한 국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유입세를 지속하거나 유출폭이 제한
  - 특히 한미 금리역전이 최대 100bp까지 확대된 '18.3월~'20.2월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9조원)된 반면 채권자금은 오히려 대폭 유입(25조원)된 점을 참고할 때, 내외금리차 만으로 인한 외국인 채권자금의 기계적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
- 다만 현재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빠르게 긴축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는데다 원화도 가파른 약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여건은 과거와 달리 비우호적
- 더욱이 작년 국채발행 확대 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로 수급에 일조한 데 반해, 금년 외인 매수가 축소될 경우 채권시장의 수급환경 악화·변동성 확대 야기 가능성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안정에도 투자심리 부진이 이어지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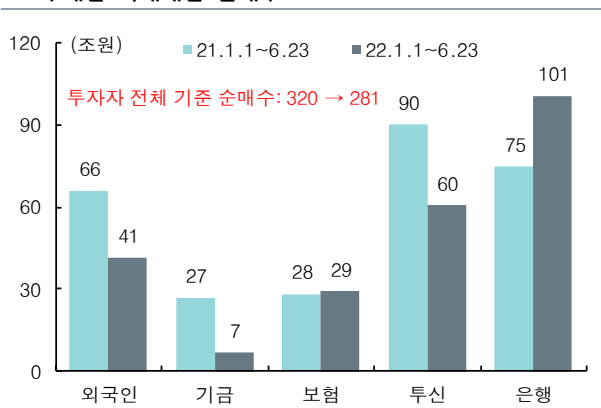
- 물가의 안정적인 추세 전환 확인 전까지 연준의 강한 긴축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시장의 경기침체 가능성 선반영에 따라 美 장기금리 상승은 제한될 전망
  - 연준의 7월 75bp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5월 PCE 및 기대인플레이션이 4월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는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
- 국내도 치솟는 물가(5월 PPI YoY 9.7%) 고려 시 7월 빅스텝 가능성은 여전, 시장금리는 대외금리에 연동되는 가운데 수급여건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40%~3.75%, 3.50%~3.80% 범위로 전망 

■ 대외긴축發 외국인 자금유출 사례 비교

	테이퍼 트럼프	美 금리인상	한미 금리역전	현재
시기	'13.6월	'15.7~'16.1	'18.3~'20.2	'21.9~ '22.6.23
경기상황/ 물가(CPI YoY)	회복국면/ 1.2%	회복국면/ 0.5~1.1%	침체국면/ -0.4~2.1%	침체우려/ 5월 5.4%
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지속	완화기조 지속	소폭 긴축 이후 완화	긴축기조 강화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	상승	지속 상승	급등
주식 순매수/ 채권 순투자	당일 -5.1/+0.6	일평균 -2.2/-0.7	일평균 -0.4/+1.1	일평균 -1.5/+2.8

주 : 주식 순매수 및 채권 순투자 단위는 조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체별 국내채권 순매수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외환: 원화 수난시대, 당분간 高 변동성 불가피

최 제 민 수석연구원(jeminchoi@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美 5월 물가 서프라이즈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외인 자금 이탈 압력 속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약 13년래 처음으로 1,300원을 상향 돌파하였다. 이후 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며 환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원화 강세 재료가 거의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환율 추가 상승시 고점을 1,35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향후 인플레이와 경기 침체 우려발 금융불안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 [원/달러 환율] 물가 충격과 경기침체 우려 속 외인자금 이탈 등으로 1,300원 돌파

- 美 5월 소비자물가가 시장과 연준의 예상을 상회하고 연준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면서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
  - CPI 발표 전일(6.10) 대비 코스피는 10.8% 하락, 환율은 33원 상승(6.23일 기준)
- 특히 美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안전통화 선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6월중 -5.7조원),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
  - 6.23일 원/달러 환율은 1302.8원을 기록해 2009년 7월 이후 약 13년래 최고치 경신


### ■ [국제 환율] 인플레이 확산 속 연준 긴축 강화로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지속

- 달러화는 미국 물가 오름세 확대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강화로 강세가 재개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였으나 美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상승폭 축소
  - 파월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美 경기침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화는 강세폭을 일부 반납
- 유로화는 물가 급등세 지속에 따른 ECB의 금리인상 속도 강화 기대로 강세를 보였으나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도 함께 커짐에 따라 혼조세 시현
- 엔화는 BOJ의 초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로 약세를 보였으나 美·EU 경기침체 우려 확대 속 안전통화 선호, 일본 정부 인사의 엔저 비판 발언 약세폭 완화
  - 엔/달러 환율은 6월 22일 장중 136.7엔을 기록해 1998년 이래 최고치 경신
-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따른 방역 부담과 위험회피 강화 등으로 약세 보험권 내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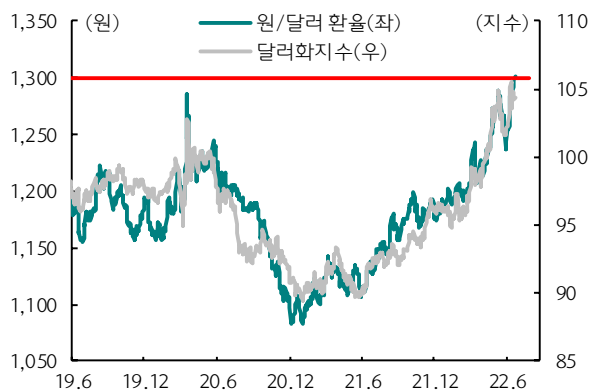
■ 연준의 독보적 긴축 스탠스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감안시 강달러 환경 지속될 소지

- 전방위적 물가상승 압력 속 美 물가 피크아웃이 지연되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로존과 일본 등 주요국과의 긴축 강도 차이 확대가 불가피
- 특히, 달러화 지수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약 58%)는 ECB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강세 전환이 어려운 환경
  - 유로존 경제는 러-우 전쟁발 에너지가격 급등에 더욱 취약한 구조
- 유로화 다음으로 비중이 큰 엔화(약 14%) 역시 BOJ의 초완화적 통화정책 고수로 인해 여타 주요국과 통화정책 차별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한편, 美 경기침체는 달러화 약세 요인이나 미국 외 여타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 글로벌 금융불안 확대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달러화 강세에 무게 실릴 소지
- 이러한 환경하에서 원화는 내외금리차 확대, 외인 자금유출, 美-유로존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고유가발 무역수지 적자 등 약세 요인 산재

■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와 시작되는 경기침체 속 원화 약세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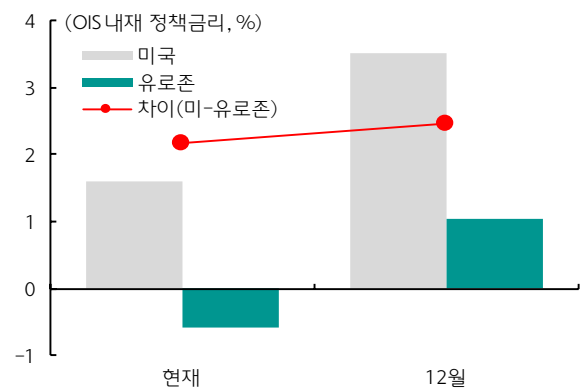
-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위험회피 강화로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1,300원에 도달한 이후 당국 개입 등으로 추가 상승은 다소 제한
- 다만, 물가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화 약세 압력 심화될 우려
- 향후 국내외 소비자물가·실물 지표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까지 열어둘 필요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 레인지는 1,280원~1,350원으로 제시 

■ 원/달러 환율과 달러화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 시장에 반영된 2022년말 연준과 ECB 내재정책금리



자료 : Bloomberg(WIRP 6.23일 기준)

##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약화되며 매수심리 위축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매수심리 위축, 매물 적체 등으로 인해 전국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다. 7월에는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격 상승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미분양 재고가 증가하고 분양성 저하 우려 증대로 분양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편되었으나 자재비 인상분 반영 등 부분적 개편만 추진되어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 매수심리 위축, 매물 적체, 자금마련 제약으로 전월 대비 전국 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 일부 고가주택과 재건축 등 개발호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매수심리 위축, 매물 적체, 거래량 둔화로 인해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02('22.3월) → 0.06(4월) → 0.01(5월)
-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부산, 울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전과 대구는 매물 적체,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대구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43('22.3월) → -0.41(4월) → -0.50(5월)
- 금리 인상,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으로 자금마련 제약 강화, 가격 상승 기대 약화로 가격 상승세 둔화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 농후
  - 매매가격전망지수(서울/6대광역시) : 90.6/90.6('22.3월)→98.1/89.7(4월)→92.2/84.5(5월)


### ■ 관망세로 인해 분양성 저하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양계획은 조정될 가능성 증대

-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매매거래를 연기하고 관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95~114 사이 포함) : 116/117('22.4월) → 109.4/108.9(5월)
- 이에 청약경쟁률이 하락하면서 아파트 분양성이 저하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증대되며 부동산 PF 자금조달에 난항이 따를 전망
  -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전국/수도권) : 92.9/113('22.4월) → 87.9/102.9(5월) → 70.9/81(6월)
- 아파트 공급은 선분양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한다면 건설사들의 분양계획 조정은 불가피해 향후 신규 물량 감소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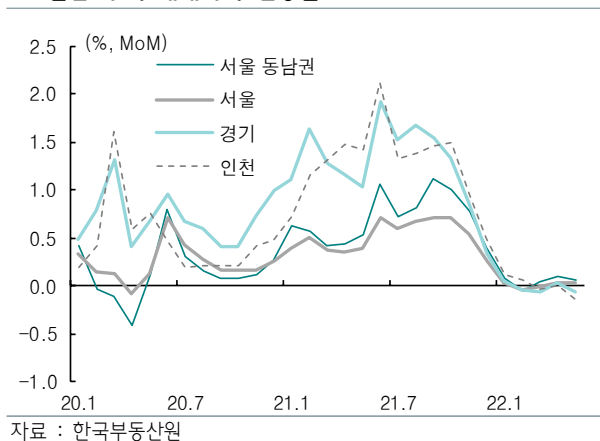
■ 분양가 제도가 개편되었으나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민간택지 내 분상제 개편으로 자재비 인상분과 정비사업 추진비용 등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전망
  -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산정기준도 인근 시세 반영기준이 준공 20년에서 준공 10년으로 개선되고 심사기준을 공개할 예정으로 투명성 증대
- 그러나 시장 내 관망세가 심화되고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분양자의 자금마련 제약으로 미분양 재고는 증가할 가능성 농후
  - 전국 미분양 재고(만호): 1.5('21.7월) → 1.4(10월) → 2.1('22.1월) → 2.7(4월)
- 분양가 책정에 갈등이 고조됨을 고려해 분양가 관련 제도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수요 위축으로 인해 공급확대 등의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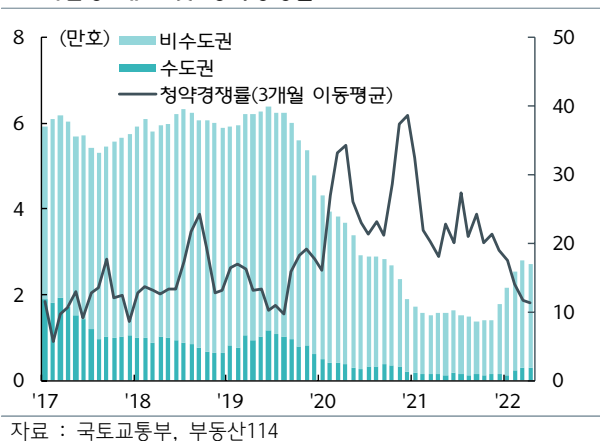
■ 보증금 부담 가중되며 전세가격은 보합 전환, 월세가격은 상승세 지속

- 전국 전세가격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임대보증금 상승 부담으로 보합 전환하였으며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02('22.3월) → 0.01(4월) → 0.00(5월)
  -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08('22.3월) → -0.03(4월) → -0.02(5월)
- 가격 상승기대 약화로 임대수요가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자금 마련 어려움으로 월세계약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월세가격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 MoM) : 0.14('22.3월) → 0.15(4월) → 0.16(5월)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부분적 개편만 추진될 예정으로 신규 임대계약 중심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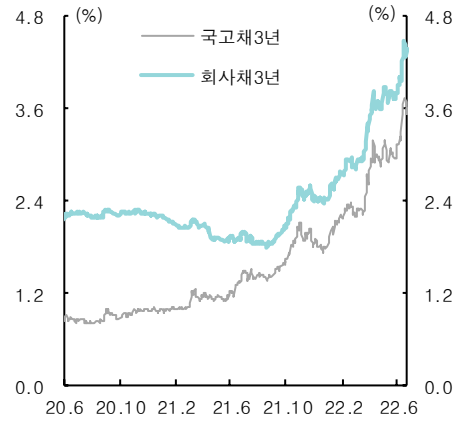
■ 미분양 재고 및 청약경쟁률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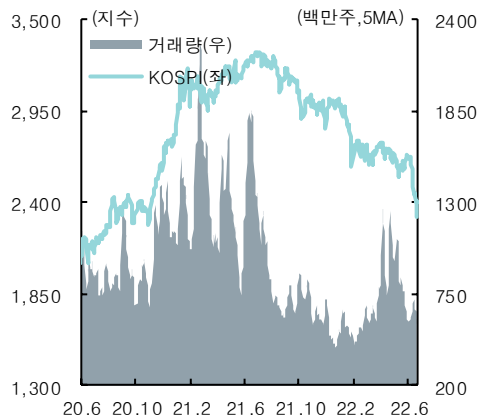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5월말	1.86	1.96	2.56	3.81	3.03	3.26
6월17일	1.73	1.99	3.17	4.47	3.75	3.86
6월20일	1.72	1.99	3.16	4.41	3.68	3.83
6월21일	1.72	1.99	3.14	4.40	3.66	3.83
6월22일	1.72	2.00	3.12	4.28	3.52	3.71
6월23일	1.75	2.00	3.15	4.36	3.61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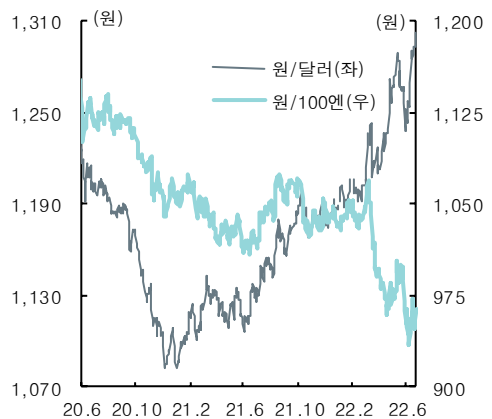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5월말	2,685.9	139,709	672	10,573
6월17일	2,440.9	112,016	635	-3,902
6월20일	2,391.0	90,923	593	-6,659
6월21일	2,408.9	74,408	480	-3,201
6월22일	2,342.8	86,901	532	-3,202
6월23일	2,314.3	102,124	750	-2,961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5월말	1,237.2	961.4	185.4	1,327.8
6월17일	1,287.3	953.8	191.6	1,351.0
6월20일	1,292.4	956.8	193.2	1,358.4
6월21일	1,293.6	947.4	193.4	1,362.2
6월22일	1,297.3	951.7	193.6	1,370.6
6월23일	1,301.8	964.5	194.3	1,3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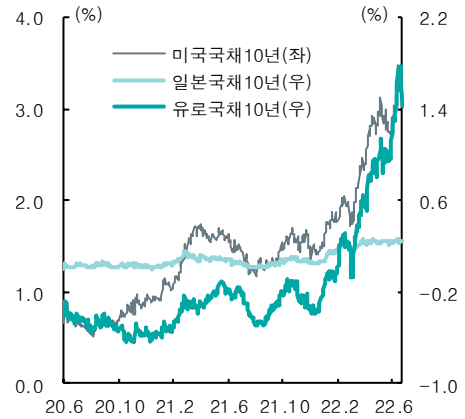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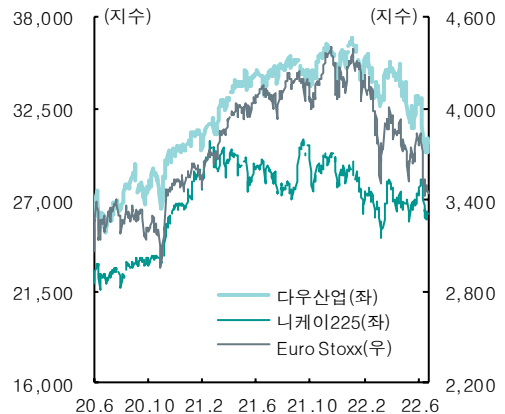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5월말	0.83	1.61	2.56	2.84	0.24	1.12
6월17일	1.58	2.10	3.18	3.23	0.23	1.66
6월20일	1.58	2.12	3.18	3.23	0.24	1.75
6월21일	1.58	2.15	3.20	3.27	0.24	1.77
6월22일	1.58	2.18	3.06	3.16	0.25	1.64
6월23일	1.58	2.20	3.01	3.09	0.24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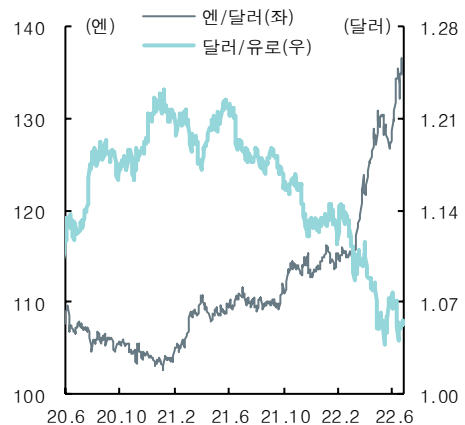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5월말	32,990.1	27,279.8	3,186.4	3,789.2
6월17일	29,888.8	25,963.0	3,316.8	3,438.5
6월20일	-	25,771.2	3,315.4	3,469.8
6월21일	30,530.3	26,246.3	3,306.7	3,494.0
6월22일	30,483.1	26,149.6	3,267.2	3,464.6
6월23일	30,677.4	26,171.3	3,320.1	3,436.3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5월말	128.62	1.073	116.4	1,848.4
6월17일	134.95	1.050	116.3	1,840.6
6월20일	135.08	1.051	108.4	1,840.6
6월21일	136.50	1.053	111.8	1,838.8
6월22일	136.27	1.056	106.6	1,838.4
6월23일	134.92	1.052	106.5	1,829.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6월 24일 인쇄

2022년 6월 27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